

내 인생의 흑자

야고보서 4:13-17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민족'을 들라면 두 말 할 것 없이 유대인을 지적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망에 흠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도시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는 유대인들을 환영했고, 나중엔 이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현찰이 도는 곳에는 언제나 유대인도 따라 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세계 경제의 8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수준의 장사꾼이 있습니다. 첫째, 삼류 장사꾼으로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둘째, 이류 장사꾼인데, '물건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물건을 팔아먹는 비교적 썩은 좋은 장사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일류 장사꾼인데, '물건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고단수 장사꾼'으로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끌어들이 흑자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단 유대인뿐 아니라 그 누구도 적자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흑자를 보고 싶지 적자를 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장사를 하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더 많은 이문을 남겨 큰 흑자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가정 경제를 맡고 있는 주부들조차도 가계부에 적자가 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재정이 적자가 나도 괜찮겠습니까? 흑자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 절)고 하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1:5 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며 부지런하고 침착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하셔서 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선 안 되는데 그것은 물질의 흑자가 곧 인생의 흑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기자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재물의 흑자를 보며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6-17 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흑자를 많이 남기게 되자 아주 행복해하며 미래를 설계하며 자기만을 위한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20 절)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흑자는 잠깐이지만 인생의 흑자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흑자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의 흑자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몇 몇 나라의 나이 어린 소녀들이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돈을 마음껏 쓰기 위해 스스로없이 몸을 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마지못해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은 풍족하게 돈을 쓰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온갖 무리를 하게 되고, 돈 때문에 가정파탄에 이르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 돈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거머쥔 어떤 사람의 가정은 그전까지는 화목했다가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가정이 금이 가고 맙니다. 다 돈 때문에 생긴 오늘날의 비극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재물을 좇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재물을 사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받았고(왕하 5:20-27 절), 신약의 "아나니아"와 "사비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가 징계를 받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행 5:1-11 절)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롯 유다"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재물을 좇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죄와 가까워져서 결국 적자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재물 모으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아주 돈 많은 거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체신부장관을 맡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주일성수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보장해준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무척 가난해서 \$1.50 짜리 성경을 월부로 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재물의 흑자가 아니라 인생의 흑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물질만능주의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여러분!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눅 12:24 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재물 문제, 물질 문제, 먹고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 6:11 절)라고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족한 줄 알고 다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흑자를 남기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허무함을 재물의 덧없음과 관련하여 말씀한 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모으는 목적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 악질이어서 정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유별나게 악해서가 아닙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Earn as much as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Save as much as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Give as much as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 주어라)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resistance)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이 없는데도 잘못 잡혀온 사람이 끼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함께 처형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한사람이 너무 억울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자 한 저항운동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당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이다. 당신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무참히 피 흘리고 도시들은 파괴되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쌓아 놓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했을 것입니다. 단지 남을 위해 한 것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남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판결입니다. 그런 인생은 적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유익 대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과 안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와 사탄의 중간 존재'라고... 이 말은 곧 '모든 인간은 천사와 사탄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을 때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의 내적 갈등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적 심성과 사탄이 주는 악마적 심정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이 내적 갈등에서 사탄에게 패한 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려고 했을 때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눅 22:3 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와 사탄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이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인생을 자살로 비참하게 마감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적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과 그로 인한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요 의인입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에 오셔서 삶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선을 행치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닌 아버지 품에 있는 효자를 가장한 '더 위험한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이란 작은 의미로 착한 언행/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하게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선행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심으로 이 세상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흑자 인생이었음을 증명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재물의 흑자는 불지언정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흑자 인생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만능주의에 휩쓸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서 기필코 인생의 흑자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